## 수요 인터뷰

# "전통계승·새문화 창조 도량으로 가꾸겠습니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초대원장

## 장한기 박사

## 불교와 연계 … 현장 통한 이론정립에 역점

국내 대학중 최초로 설립된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장한기 교수(65)는 대학원 개원에 따른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교수님 초대 대학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의 설립 의의는 무엇입니까.

▲우선 이같은 훌륭한 도량이 우리 동국대에 생길 수 있도록 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하고 첫 문을 여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대학원은 동국대가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교육도량입니다. 그간 동국대가 쌓아 온 문화 예술 방면의 역사를 바탕으로 국내외에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게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예술대학원의 설립 의의는 무엇보다 먼저 고급문화 인력의 배양터전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특히 불교문화와 불교예술에 대한 장족의 발전이 이 대학원을 통해 기약될 것으로 보여 21세기의 불교문화 산실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학원의 개설학과와 이수과정을 소개해 주십시오.

▲신입생 모집은 마감이 됐습니다. 새해부터 개강하게 되는데 크게 불교예술부문과 연극영화, 문예창작부문으로 나뉘어집니다.

세부적인 학과는 불교미술학과 불교음악과 문화재과 연극과 영화영상과 문예창작과 등 6개 전공학과로 분류됩니다. 과정은 석사과정과 연구자·관리자과정으로 나뉩니다. 특히 연구·관리자 과정은 현재 활동중인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아카데미즘 보다는 응용부문에 역점을 두어 강의도 매우 신선하게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신선한 강의란 계획에 관심이 가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예를 들자면 현장실습이나 특강등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원로 예술인을 초빙해 부담없는 대화의 자리도 만들고 문화현장 기행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해당학과별 소모임도 활성화 시켜 작품발표회나 연구 발표의 기회를 많이 만들 것입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참여가 기대되고 그를 통한 문화예술의 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같은 학생들의 활동은 결국 불교포교와도 관련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포교는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서로의 믿음을 얻 때 포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나 예술의 마당은 무엇보다 감동과 흥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포교에 매우 적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대학원은 불교문화와 예술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기대이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불교관련 학과가 많은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만 우리 민족의 문화와 예술치고 불교와 동떨어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대학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불교의 찬란한 문화예술을 잇는 튼튼한 가교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목련희」가 아직도 잘 전해져 오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원효의 무애춤을 계승한 아파용(阿波踊)이란 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불교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늦게나마 대학원이란 교육도량을 통해 묻혀있는 불교문화를 발굴하고 계승시키는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소중한 자료사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천 은해사에서 스님들이 연극을 하는 장면입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근세까지도 사찰에서는 극을 통한 포교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대학원에서는 이처럼 잊혀진 전통문화예술을 발굴해내고 계승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 *"문화예술대학원은 동국대가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교육도량입니다. 그간 동국대가 쌓아 온 문화 예술 방면의 역사를 바탕으로 국내외에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게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예술대학원의 설립 의의는 무엇보다 먼저 고급문화 인력의 배양터전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진의 구성이 필수적일 것 같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각 방면에서 대가(大家)를 이룬 분들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초빙할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학문위주로 흐르면 현실과 멀어질 우려가 있는만큼 석사과정 이수자에게는 전문학문을, 연구·관리자 과정 이수자에게는 실질적인 기량증대를 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같은 원칙아래 훌륭한 교수진을 영입할 계획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동국대학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일생이 이곳 목멱골에서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내년이 정년퇴임인데 58년부터 근무했으니 짧은 시간은 아니었군요.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수중에는 가장 오래 이곳에 살았습니다. 선친께서도 중앙불전에서 공부하셨고요. 젊은 시절 서라벌 예술대학에서 몇년 강의한 것을 빼고는 35년 가까운 시간을 동악에서 보냈습니다. 물론 저도 이 학교의 국문학과 출신입니다.

—연극영화과를 개설한 산파역을 맡으셨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년에 연영과가 개설됐습니다. 당시 저는 교무과장을 맡고 있었고 백성욱박사께서 이사장·동창회장·총장직을 다 맡고 계셨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진씨와 친분이 두터웠어요. 그래서 동국대에도 연극학과를 만들고 싶어 유치진씨를 백성욱박사에게 소개했지요. 유씨는 저의 뜻을 백박사님께 전했는데 백박사님은 쾌히 승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락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극작가인 유치진씨가 강의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유씨는 그 뜻을 받아들였고 정부기관에서도 어렵지 않게 연극영화과의 개설을 허가해 줬습니다.

당시를 회고해 보면 모두가 일이 잘 되려고 좋은 인연으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학과 개설 후 유치진 씨와 제가 학과를 이끌었는데 전국 대학 연극경연대회의 초창기에는 동국대 팀이 늘상 1등을 차지했지요. 그런 기량들이 조금씩 전통으로 쌓여진 것도 부처님 가피라 생각합니다.

— 지금 본관에 있는 소극장도 그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과개설 몇년 후에 지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소극장인 셈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극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기량을 닦고 있고요.

—금년에 〈중국과 러시아의 문화산책〉과 〈일본의 뿌리 한국문화〉라는 두권의 탐사기를 펴내셨는데 그 책들을 통해서도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자주 언급하셨더군요.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저는 우리 역사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세 나라의 문화학술 관련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탐구해야 할 우리 민족의 본래 모습을 많이 발견한 것입니다. 세 나라의 문화학술 관련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탐구해야 할 우리 민족의 본래모습을 유추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묻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모습이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나라에 잔재된 문화의식과 예술작품들과 우리의 역사 문화의 연관성을 나름대로 검증해 봤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문화의 계승발전 방향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과학문명의 발달 속에 인간성의 상실이 가장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대두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같은 인간성의 상실을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이 바로 문화와 예술입니다. 특히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은 '인간구제' '깨달음의 사회 건설'에 기여해야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발전계승돼야 할 것입니다.

대담 : 임연태 기자


KAL's WORLD TOUR KAL월드투어

불기 2539년

일반여행법 등록 제 8호

# 성도절 기념 大법회를 부다가야에서..

**불자 여러분의 요청에 의하여 '94년에 이어 '95년에도 기획한 성도절 기념 특별상품**

94년 1월 2차에 걸쳐 성공적인 성도절 대법회 참가행사를 불교방송(BBS)과 공동주관한 한진관광이 첫 행사에서 얻은 큰 호응과 불자 여러분들의 요청에 힘입어 95년 1월 성도절 대법회에 참가하실 기회를 또다시 마련했습니다.

"신심으로 성지를 순례하면 천상계에 환생하리라"
— 부처님 말씀 중에서 —

서울⇔델리 직행(2회)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 운항

●1차 : '95. 1. 6~1. 15. (9박 10일)
●2차 : '95. 1. 14~1. 23 (9박 10일)

| 불교 성지순례 10일 | |
|---|---|
| 요금 | ₩ 1,240,000 |
| 경유지 | 델리, 일라하바드 (1 - 바라나시 (1 - 부다가야 (1-라즈기르, 나란다, 파트나(1)바이샬리, 쿠시나가르(1)룸비니, 발랑프러 (1 - 라나우, 아그라 (1 - 델리 (1 - 기내 (1 |
| 식사 | 조식 8회/중식 8회/석식 8회/기내식 3회 |
| 호텔 | 1급 2인 1실 기준(단 부다가야, 쿠시나가르, 발랑프러 지역 4인 1실) |

| 인도 문화여행 10일 | |
|---|---|
| 요금 | ₩ 1,400,000 |
| 경유지 | 델리 (1 - 바라나시 (1 - 카주라호(1 - 아그라 (2 - 파테프러시크리, 자이프러(2-델리 (1 - 기내 (1 |
| 식사 | 조식 8회/중식 8회/석식 8회/기내식 3회 |
| 호텔 | 1급 2인 1실 기준 |

• 상기요금에서 인도, 네팔 비자요금 W19,000은 불포함입니다.
• 가까운 여행사에 문의하셔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금 W100,000 한일은행 009-03-011006 (주)한진관광
• 정부인가 조건임.

韓進觀光
서울시 중구 봉래동 132-4

예약문의: 726-5763~4 5771.73
서울:(02) 726-5750 대전:(042) 252-2034
부산:(051) 463-2115 대구:(053) 254-3001
경주:(0561) 745-3070 광주:(062) 228-0041
제주:(064) 42-7217

후원 : BBS 불교방송 인도관광성 대한항공